

흐르는 강물처럼

2022년 4월 13일 오전 5:46296 읽음

<독후감> 김대중 자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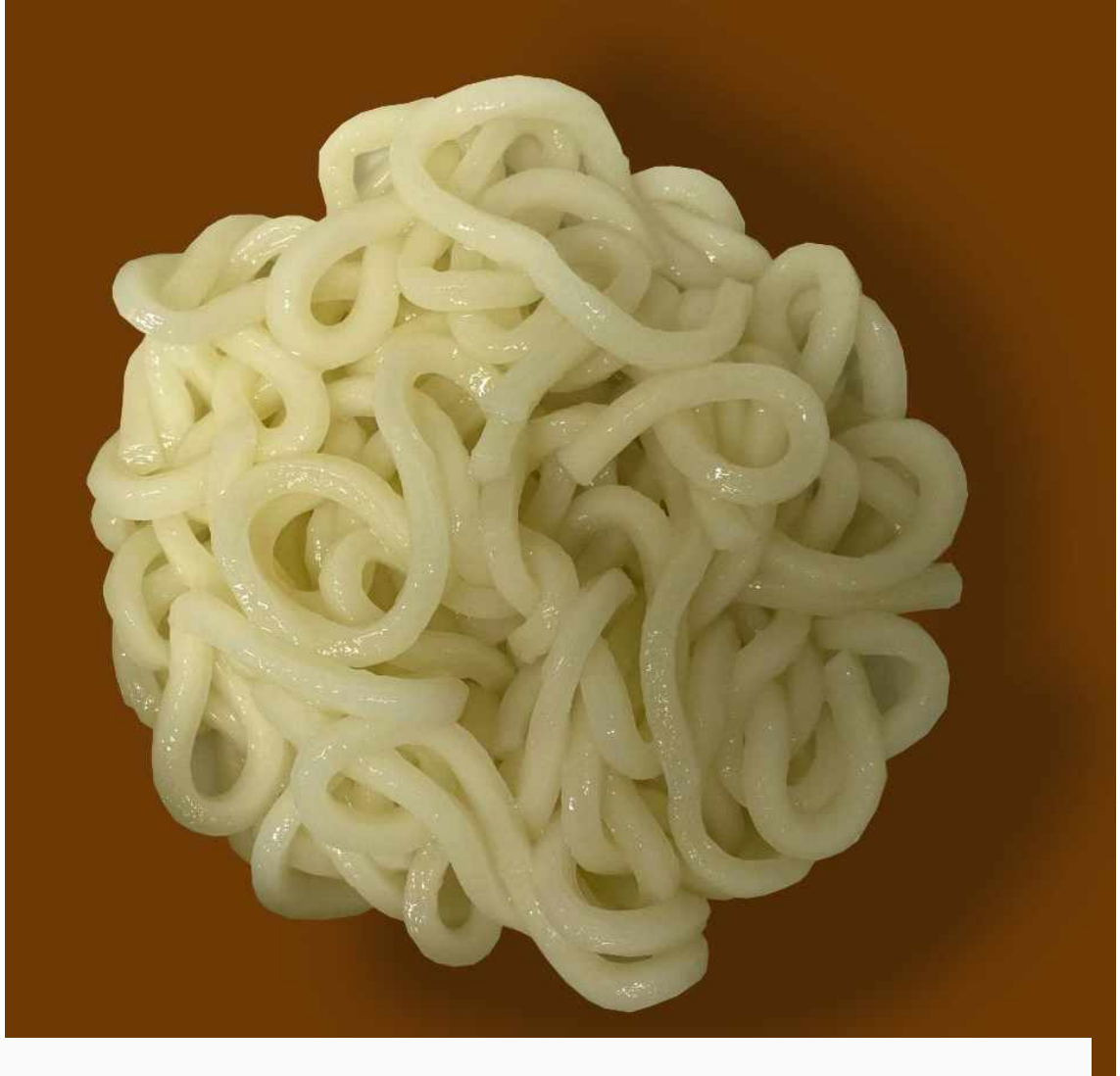
도덕적 정치인과 비도덕적 정치판

어제 낮에 탁구 동호회원 한 사람이 무슨 말 끝에

"문재인도 인간이가"

라는 말을 내뱉길래

깜짝 놀라서 그 회원의 마뺌을 쳐다보았다.



• 틀림없이 마뺌의 안쪽에는 우동사리만도 못한

뇌수가 들어차 있을 것이었다.

도대체 그 우동사리가 설정한 인간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일국의 대통령도 양에 차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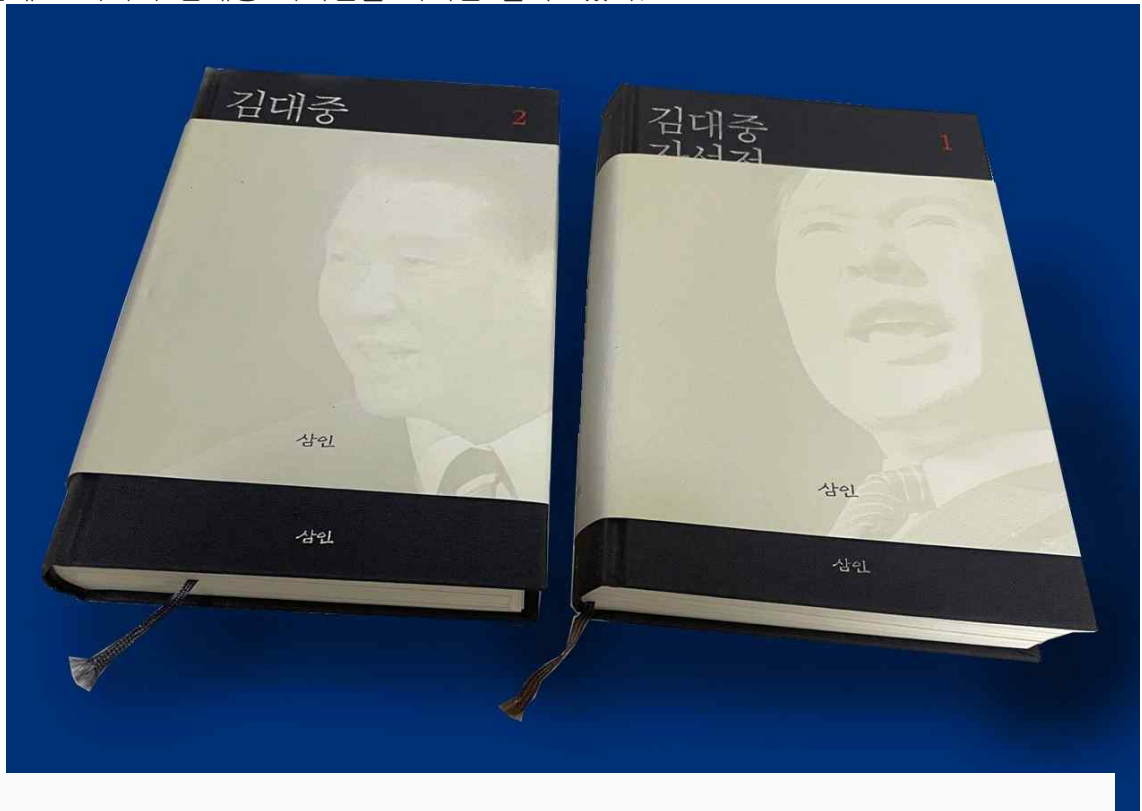
평소엔 선량해보였던 회원이긴 하지만

어이없는 무식을 자신감으로 착각하는 야만이 징그러울 지경이었다.

문재인 이전에 우동사리들의 웅단 폭격을 당한 김대중이 있었다.

참으로 징그러운 야만의 시대를 헤쳐온 김대중.....

집에 오자마자 김대중 자서전을 다시금 펼쳐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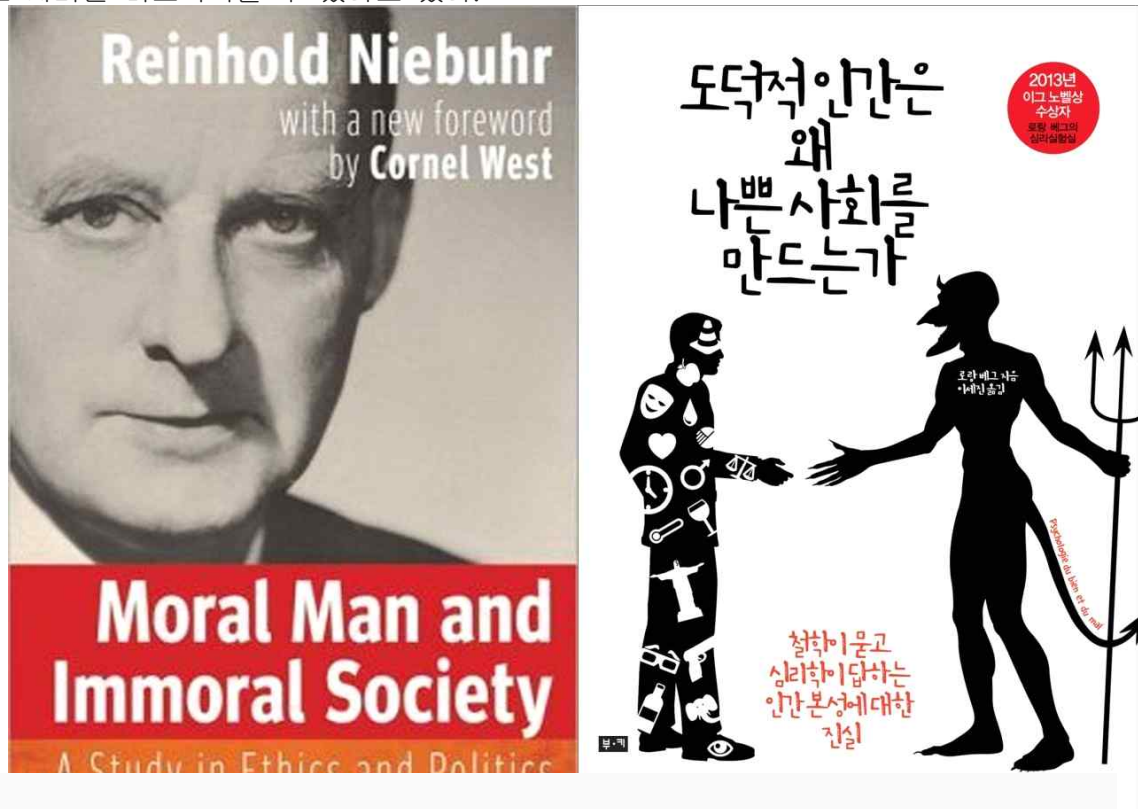


김대중.  
그는 우리시대의 현자이면서 엄청난 박대를 독점한 정치인이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저자 라인홀드 니버는 ,

도덕적인 인간이 모여서 구성된 사회일지라도  
그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 있다고 했다.



한 개인은 동정심도 있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이타심이나 이해심을 가질 수 있으며,  
또 개인으로서는 양심적이고 이성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을 도덕적인 인간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집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몹시 이기적이어서 한 국가나 계급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부도덕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히틀러의 나치가 그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랬고  
한국의 친일보수정치권이 그랬으며 지금도  
그 왕성한 부도덕성에는 변함이 없다.

니버는 이러한 사회 집단의 악을 견제하는 데는  
양심에 대한 호소나 설득 같은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 국가나 사회 집단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폭력이나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폭력이나 강제력이 반드시  
정의나 도덕적 선에 의한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견제하는 또 다른 폭력과 강제가 사용되게 되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도덕적인 요소가  
이런 폭력이나 강제력과 결부되어야 한다고 니버는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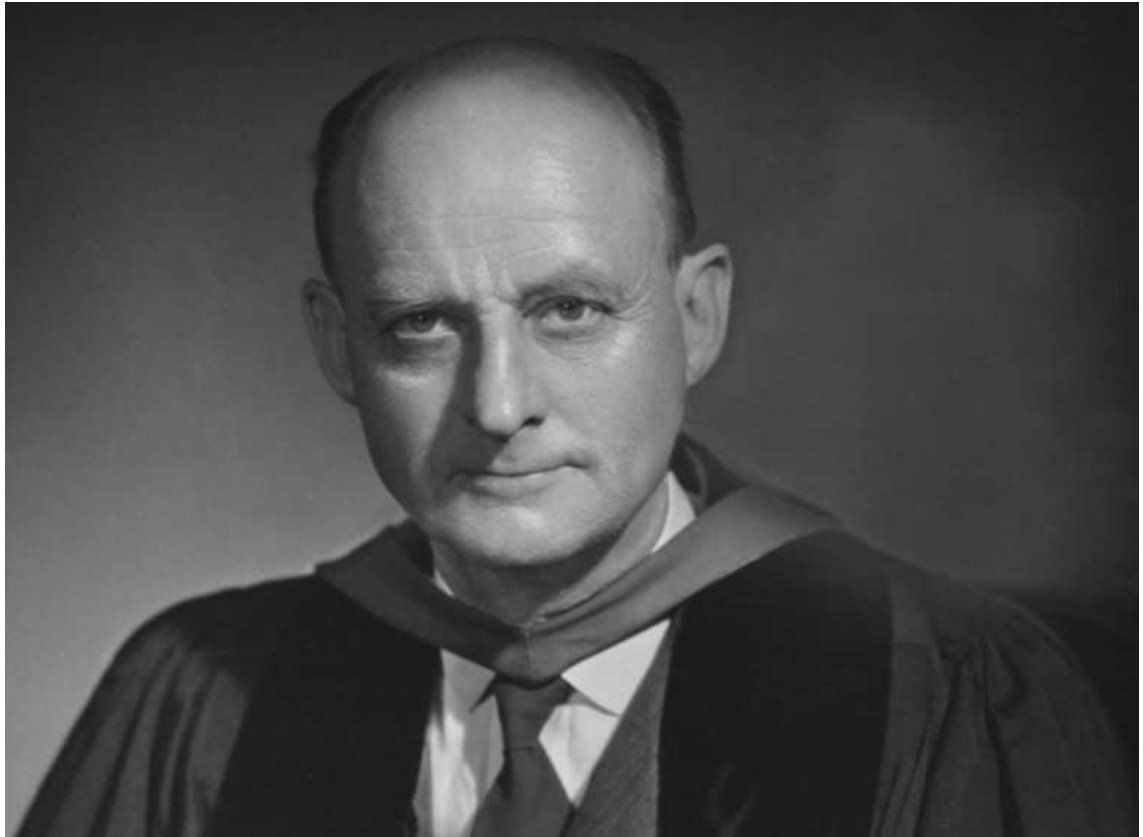
평생을 사회 집단의 악과 대항하며 살아온 김대중에게는 폭력이나 강제력이 있을 수 없었다. 야당의 총재는 물론 여소야대의 대통령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치인 김대중의 무기는 양심과 정의뿐이었고 라인홀드 니버의 말처럼 폭력이나 강제력을 조율할 종교적인 신앙마저도 김대중은 끝없이 자신의 양심과 정의를 단련하는 데만 쓰여질 뿐이었다.

•

정치인 김대중은 도덕적이고 양심과 정의에 입각한 일생이냐에 대한 견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자서전> 전반에 흐르는 <땃땃함>은 양심과 정의에 바탕을 두지 않고는 가능한 논조가 아닐 것이다. 전기나 회고록, 혹은 자서전을 쓴다는 자체가 살아온 인생의 땃땃함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





(하긴 김영삼도 자서전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조차도 자서전을 쓴다면 말릴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물론 인간 김대중의 과오가 전무하다는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이나 측근들의 비리, 아들이 관련된 추문에 대해서는  
<어려웠다>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 <미처 몰랐다> <안타깝다> 등으로



시인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 김대중은 검은 돈과 술수가 난무하는 한국의 정치판을 헤쳐나온  
소위 정치인이었다.



그에게 한 점 의혹이 없는 도덕적 순결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쇼생크를 탈출한 앤디 듀프레인에게  
오물 냄새가 난다고 트집을 잡는 격이 아닐까?  
대북 송금을 둘러싸고 특검을 허용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실망하는 대목에서  
정치인 김대중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난다.

영국의 디즈레일리 총리가 로스차일드 회사를 통해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매입하는 사례를 들어 현대를 통한 대북 송금은 영국의 수에즈 운하 운영권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만큼 정치적 유연성을 지니지 못하고 지나치게 순결한 까닭에 부영이 바위 위에서 몸을 던졌는지 모른다.

<김대중 자서전>은 한국의 모든 정적들에 대한 한판승의 기록이다. 박정희는 물론이고 윤보선,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에 대한 도덕적, 이성적, 지성적, 인간적, 역사적 한판승의 기록이다. 오로지 주 종목인 정치적 승부는 술한 패배의 연속으로 점철되었지만 이 역시 마지막 1 승으로 한판승이 되었다.



김대중의 정적들이 노벨평화상 수상을 흥집 내는 작태를 저지름으로써 전 세계에 그들의 부도덕성을 공인받는 대신 김대중의 정치적 승리는 상대적으로 빛나는 한판승으로 승격되었다.

<김대중 자서전>은 정치인 김대중뿐 아니라 사상가 김대중, 종교인 김대중, 문인 김대중, 철학자 김대중의 인생을 아울러 서술(구술)하고 있다.

공부(독서)를 하고 싶어 <다시 감옥에 가고 싶다>고 농을 할 정도로 그의 독서열은 경지를 넘는다. 때문에 세계 각국의 원수들은 물론이고 석학들마저도 김대중에게 우러나는 존경과 깃뚫힌 예우를 갖추고 있다. 오로지 조지 부시만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This Man>이라 호칭하며



오만 방자를 떨어뜨렸지만 훗날 측근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사과했다고 한다.



• 외환 위기에서 나라를 건져내었으며,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화해를 성사시키고  
IT 강국을 단시일 내에 이룩했는가 하면  
생산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구축한 대통령으로  
전 세계가 추앙하고 있는 반면,  
아직도 국내의 정적들은 물론,  
갑남을녀들마저 <김대중이....>하며  
한 시대를 풍미한 거목의 진면목을  
모르고 있는 사실은 실로 안타깝다.

• 권당 600 면이 넘는, 1,2 권 총 1,350 여 페이지에 걸친  
그의 일대기 자서전은 마치 압축파일을 연상케 한다.





할 말이, 기록할 사건이 산처럼 쌓였는데도  
줄이고 줄여서 압축해 놓은 기록처럼 보인다.

최대의 정적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이 <김대중 자서전>을 선물하고 싶다.  
생전에 다 읽어낼 끈기와 능력,  
독해력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2010.9.29.

(이미지는 Microsoft Edge 에서)

[구독하기](#)

17  
댓글 7  
표정짓기  
공유하기





1. 댓글
2. 댓글



**고도를 기다리며**  
 아버지보다 더 따뜻한 그분의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눈물나려고 합니다.  
 목포에 김대중센타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자서전도 사 봐야 겠습니다.  
 노벨상을 욕하는 무식을 범하는자들은  
 친일,보수 자청하는자들로 부시같은 전쟁광이나  
 다름없는 것들이지요.

4

3. 댓글



**용짱!**  
 문재인도 인간이가?  
 아주 대구스러운 표현입니다!  
 나라를 팔아 목어도 찍는다는~~

5

4. 댓글



**이봉주**  
 무식하면 저렇게 됩니다.  
 아는 만큼만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자던 암울한 시대에 그분의 말씀...아직도 선 합니다.

3

5. 댓글



**박숙희**

제가 사는 곳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흔하게 들려요~~~  
모든 불만의 근원이 희한하게도 대통령이 되는 마법. 이전에는 노무현대통령 이 그 역할을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1

6. 댓글



**함광석**

지역 감정이 이런 곳에서도  
표출 되는 군요 -.-;;

1

7. 댓글



**고도를 기다리며**

@함광석 그게 왜  
지역감정 이에요?

8. 댓글



**박영순**

일반인에게 있어서 정치인은 영원한 안줏감입니다.  
스스로의 관점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뉘고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 듯 단면을 가지고  
옳네,그르네 피 터지게 싸우지요.  
실상이 어떤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마디만 거들자면 관점의 차이나 호불호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그래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ㅎ